

성남시민의 공찰 남한산성 만덕산 약사사

회주 : 인왕 스님 주지 : 혜안 스님



기도성취 영험도량임을 금방 알 수 있게 해주는 약사사 유리광 아래 불이 사바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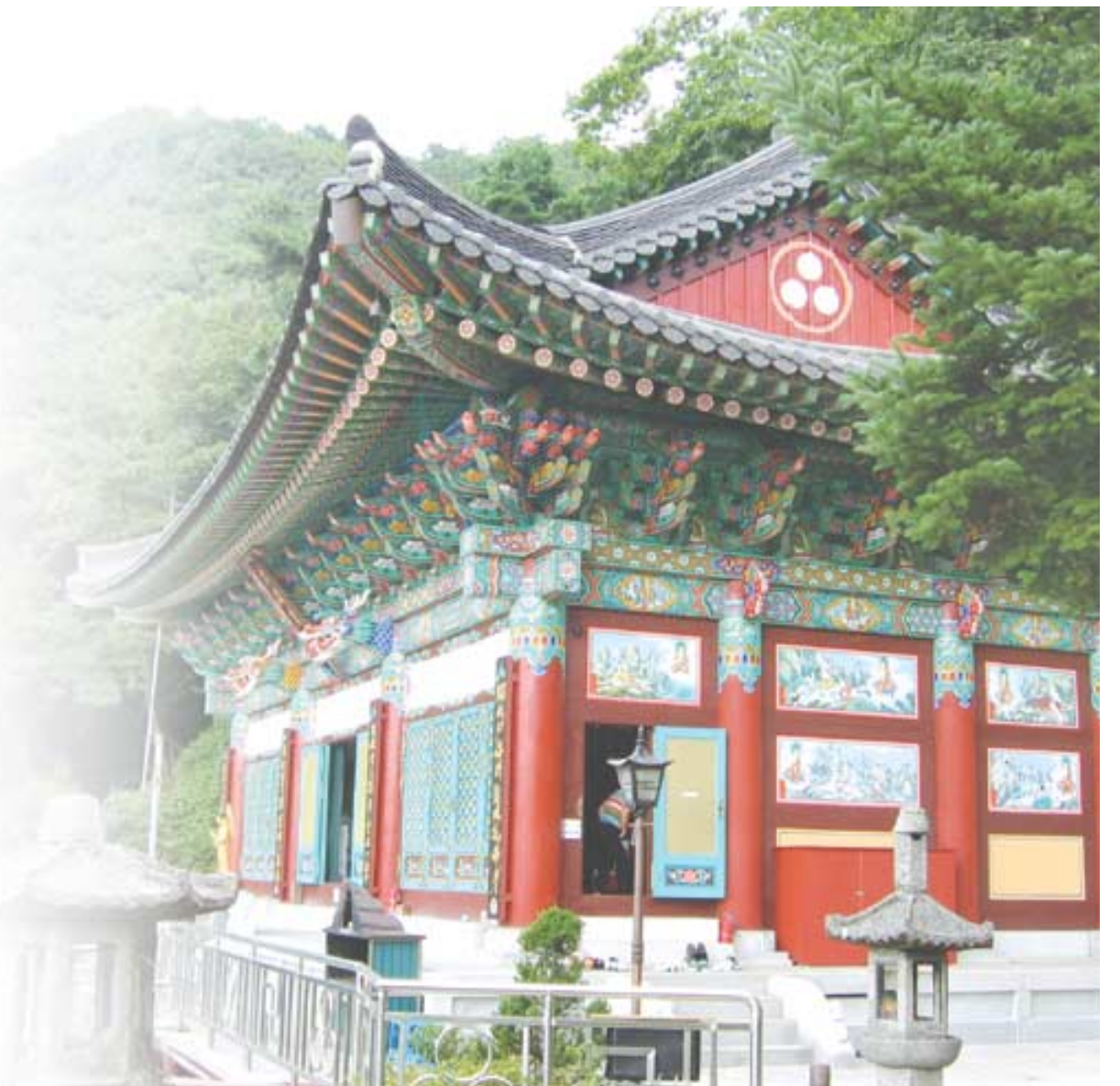
약사사의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한산성 만덕산 약사사는 주봉인 청량산을 중심으로 문형산(497m), 매지봉(400m), 검단산(542m) 등에 둘러싸여 있다. 문화관광부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약사사는 주변에 높고 낮은 산이 많고 등산로가 발달돼 성남시민의 휴식처이자 수행기도처로서 성남 시민의 정신적인 심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상 7 ☎031-734-3205)

약사사의 유래

현재의 약사사가 생기기 이전부터 경내에는 암자터가 있었다. 성남 지방 농부들에 따르면 이 암자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있는 기도처였다고 한다. 당시만해도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우거진 첩첩산중의 암자터가 현재의 약사사로 모습을 갖춘 것은 1967년. 창건주 인왕 스님이 인왕 약사암에 머물때 부처님의 현몽을 얻고서 부처다. 어느날 인왕 스님의 꿈에 아미타여래가 나타나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남한산성 만덕산에 있는 굴로 찾아오라고 했다. 창건주 인왕 스님은 약사암 주지 스님에게 이 꿈을 말하고 아미타여래께서 말씀하신 곳을 찾게 됐다. 하지만 서너달 동안 만덕산만 헤맸을 뿐 굴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어느날 지금의 성남 은행동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며 만덕산의 만덕바위와 함께 그 밑에 조그만 암자터와 굴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인왕 스님은 그제서야 만덕산 암자터로 찾아가 이 곳이 바로 아미타여래가 현몽한 만년성지임을 확신하고 땅을 매입한 뒤 절을 중창해 약사사를 창건했다. 약사사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며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모시고 있다.



성남시민의 정신적 심터인 약사사 대웅보전 전경.

■ 약사사 출토유물인 3층석탑

이 석탑은 1999년 3월 대웅보전 중창불사를 위해 대지를 정리하던 중 출토됐다. 현재는 하층 기단 2매, 갑석부재 5매, 옥개석 1석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형상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에 건립된 2층 기단을 구비한 3층 석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약사사에서는 고려중기부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평기와 편과 토기 및 다양한 자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감수: 박경식 문화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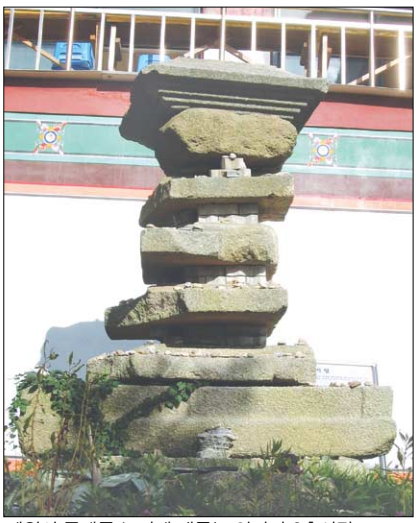
■ 성남 시민들에게 약사사는 어떤 존재인가?

인구 100만에 이르는 성남 시민의 공찰인 전통사찰 약사사. 경내에 들어서면 기도성취 영험도량임을 단박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약사 유리광아래 불이 사바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역사적 가치가 큰 출토 유물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전통을 간직한 약사사는 기독교세가 유독 강한 성남 지역에서 불법홍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약사사는 남한산 도립공원 안에 위치해 일반 시민 누구나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다.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약사사만큼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도 걸터앉아 번뇌와 고통을 치유하는 정신적 안식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약사사에서 고요한 정신적 휴식을 얻으며 속세의 번잡한 일에서 벗어나 참회를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는다면 생과사가 들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백만 성남 시민들에게 남한산성 약사사가 주는 고마움은 이루 말할 것이 없다. 언제든지 이웃과 가족이 먼 곳을 여행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절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에 벗어나 약사사를 찾아가 마음을 맑히고 온갖 번뇌를 일순 끊는 여유를 만끽하며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다보면 좀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약사사 3층석탑.

■ 주지 혜안 스님

'보살행은 하나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는 우주법계를 무대로 하여 살아가는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루만 살다가 가는 하루살이가 있는가하면 거북이나 학처럼 천년의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중생도 있고 그 삶의 영역도 가지가지로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생들 대다수는 본래의 성품 즉 불성(佛性)대로 살지 못하고 각각의 업력에 따라 익힌 습관대로 일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토록 중생을 교화하고 자신의 업

력을 녹여 좋지 않은 습관을 고쳐 본래의 밝고 깨끗한 본성자리로 환원하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본래의 성품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성이라 말하며 왜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 이자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합치되는 순수한 성품대로 살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 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풀이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현재의 우리들도 이렇게 살고 있으며, 이 일은 아마 허공에 다 팔지라도 무너져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뿌린 종자는 나고 뿌리지 않은 종자는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과(因果)의 법칙입니다.

이 고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보다 더 불행한 이웃을 생각하는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편한 잠자리에 누우면 추위에 떨면서 누울 곳을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이웃이 생각나서 내가 누리는 편안함이 오히려 죄송스럽고 불안해지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보살의 마음이 되어 함께 돕고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빛이 된다면 이 세상은 온통 그대로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약사사의 봉사활동

미얀마 문화재청과 문화교류, 스리랑카 문화센터 등 건립 지원 2006년 12월 미얀마 바간시 따민와 대탑 완공 대법회 및 낙성식 예정



약사사 해외봉사단인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미얀마 문화재청과 교류를 통해 바간지역의 훼손된 탑들을 복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약사사 해외봉사단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

약사사는 미얀마 문화재청과 활발한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미얀마 바간지역에 산재한 훼손된 탑들을 복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바간의 무수한 대탑들은 세월의 모진풍파로 허물어졌지만 미얀마 정부의 경제적인 능력 부족과 관리 부실로 안타깝게 여기던 차 2003년부터 미얀마 정부와 바간시의 도움을 받아 불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주요 탑과 주변의 작은 탑들을 완성했으며 주변 마무리만 남겨둔 상태다.

또한 약사사는 미얀마 최대종단인 아마라푸라종과 문화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2003년 12월 따민와 대탑 복원 대법회시 만달레이시에 위치한 아마라푸라종 대강당에서 교류 협약 문서 전달식과 가사공양을 했다. 이어 양국 타이거 고아원을 방문해 성금 전달과 생활용품 전달했다.

약사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네스코지정 바간 대탑(따민와) 불사도 2006년말에 복원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에 복원불사가 마무리 되는 올 12월 약사사 해외봉사단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비롯해 신도들과 낙성법회 참가 및 대규모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스리랑카와도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1983년 불교문화교류를 시작으로 메타나타 국립 승가대 도서관 건립에 큰 지원을 했다. 또한 2006년 4월에는 그동안 꾸준히 지원해온 스리랑카 문화센터 건립 기념으로 기공식 법회도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약사사 해외봉사단인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간의 불교 발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약사사 국내봉사단(여래구도 봉사단)



'여래구도 봉사단'은 매년 지역노인들을 위해 노인잔치를 열고 있다.



'여래구도 봉사단'은 보살행의 일환으로 장애우들에게 휠체어도 보급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된지 18년째를 맞은 약사사 국내봉사단인 '여래구도 봉사단'은 이웃사랑 자비실천의 정신으로 성남지역 무료급식소를 18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남한산성 공원 입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낮 12시에 하루 200여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성남시에서 장기간 무료급식을 매일 지속하고 있는 곳은 약사사 여래구도 봉사단이 유일하다. 또한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보름 전에 여래구도 봉사단 주최로 노인잔치도 열고 있다. 올해는 2천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참석했으며, 스리랑카 국립무용단의 댄스공연과 인기 가수 공연 등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했다. 이외에도 성남 시민을 위한 불교영화제를 지난해 처음으로 8월 한달간 다섯 번에 걸쳐 개최해 성남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여래구도 봉사단'은 소년소녀가장들과 장애우 돕기 일환으로 장학금 후원과 휠체어 전달도 하고 있다. (여래구도봉사단 후원회좌우체국 104281-01-000524 예금주불교봉사단)

■ 약사사 학생회

1960년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학생회를 자아개발·심신수양·자비실천을 목적으로 조직해 청년 불자 포교에 힘을 쏟았다. 현재 학생회는 주말을 이용해 학생법회를 갖고 사물놀이와 영어교육, 하계수련회 및 국내, 외에서 각종 문화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약사사 학생회의 사물놀이 공연 모습.

■ 약사사 합창단

음성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법음을 충실히 전파하고 있다. 약사사의 각종 법회는 물론이고 노인잔치 등 다양한 행사에서 찬불가를 부르며 활발한 음성공양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년 이상 단원들끼리 호흡을 맞춰와 전국 어느 사찰에도 뒤지 않을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